

1960년대 미 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정립과 그 교훈

이 표 규*

1. 서 론
2.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검토
3. MAGTF 전투지휘체계 분석 및 평가
4. 한 해병대에 주는 교훈 및 결언

1. 서 론

전략(戰略)이란 말 그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군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고대의 군사이론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How should war be prepared for?)’보다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How is war to be won?)’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 및 장비체계가 전쟁

* 단국대학교 교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근대이후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핵무기의 등장, 제1, 2차 세계대전 시의 막대한 사상자 발생, 유엔 등 국제/지역기구의 등장의 영향으로 각국의 주권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게 되면서, ‘전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How can war be prevented?)’하는 것이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중소국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주창한 것처럼, 현 시대 각국의 군사연구는 ‘군사력은 무엇인가(What is military force?)’, ‘군사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How should it be used effectively both in peace and war?)’, ‘그런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How should one prepare it for such effective use?)’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

이처럼 전략의 군사적 초점 변화와 더불어, 전략이란 용어의 의미도 국가전략,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 판매 또는 홍보전략, 개인의 성공전략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용어의 의미 확대 배경에는 노력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는 현대의 조직 관리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확대된 전략의 의미를 기업에 적용한 학자 중 한사람은 지난 2007년 5월 9일 88세의 나이로 작고한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쉐들러(Alfred D. Chandler)이다. 그의 저서 『전략과 구조(Strategy and Structure)』는 그의 생존 당시인 2001년에 이미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분야도서로 선정되었으며²⁾, 그 역시 많은 학자들로부터 20세기 하나의 학문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다. 그가 강조한 조직역량의 중요성, R&D를 통한

1) Julian Lider, *Military Theory*(Hants: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3), pp.14~15.

2) Arthur G. Bedeian & Daniel A Wren, “Most Influential Management Books of the 20th Century,” *Organizational Dynamics*, Vol.29, No.3(2001), p.223.

기술혁신, 문제해결, 인적 자원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다.³⁾ 한양대 한정화 교수는 첸들러의 『전략과 구조』를 조직의 전략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효시로 들며, 그의 학문적 업적의 대표작으로 꼽고 있다.⁴⁾

이처럼 기업의 조직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첸들러이지만, 미국해병대가 전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지기동부대(MAGTF: Marine Air Ground Task Force)’로 개편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가 『전략과 구조』를 저술하기로 결정한 1954년은 미국 해대원에서 ‘국가전략의 기초’과정을 개설하고, 강의를 시작한 시점이다.⁵⁾ 이점에서 군사이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이란 용어가 그의 저술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미국 해대원을 졸업한 해군과 해병대장교들은 미국해병대가 공지기동해병대로 전투지휘조직 개편을 단행한 1962년 12월경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고급장교의 위치에 있었으며, 첸들러의 저서가 MAGTF 전투지휘체계 정립연도인 1962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사상이 미국해병대 지휘구조개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첸들러 이전에는 정부, 군 조직, 혹은 기업들이 전략과 조직구조를 통합하여, 유사한 연구 성과를 달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행정학은 공적 영역이고, 경영학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과 무관해 보이는 경영학분야 역사학자 첸들러의 이론에 의거, 미국해병대 공지기동부대 개편을 분석해 보는 것은 영역과 무관하게, 향후 한국해병대의 공지기동부대 개편과정에 일정부분 교훈을 줄 수 있을

3) Jeffrey Fear' comment, in Sean Silverthorne, "Remembering Alfred Chandler", *Working Knowledge*, Harvard Business School, June 15, 2007, p.1.

4) 한정화, "Alfred D. Chandler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이론", 오석홍·손태원·하태권 편저, 『조직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8, 23~24쪽.

5) Jorge Nascimento Rodrigues, "2002 Strategy and Structure redux", *Business Strategy Review*(Autumn 2008), p.88.

것이며, 나아가 한국 합참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2030을 대비한 한국군 미래구조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첸들러의 『조직과 구조』에 언급된 조직혁신이론을 활용하여,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정립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해병대의 미래 공지기동부대형 부대구조 건설에 주는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다.

첸들러의 이론은 전략수립과정과 수립된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제시한 주요 원칙은 미국해병대가 MAGTF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주요 요인과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역사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료학(史料學)’이나 ‘사료비판(史料批判)’보다는, 응용연구 형태 중의 하나인 평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사료들을 분석, 해석, 평가하는 질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첸들러의 이론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들 원칙 측면에서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조직체계 정립 과정을 정리하여, 이들 원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미국 정부와 군에서 공개한 문서, 논문, 기고문, 논평 등을 주로 활용한다. 논문의 구성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장에서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 조직과 한국해병대에서 추구하는 미래조직구조 편성목표를 연구배경으로 간단히 설명한 후, 첸들러의 이론을 검토하고, 이후 3장에서 첸들러의 이론적 원칙의 틀에서 미국해병대 MAGTF 체계 도입과정을 분석 및 평가한 후, 4장에서 한국해병대에 주는 교훈과 결연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검토

가. 연구의 배경

1775년 11월 10일 미 의회의 승인에 의거, 2개 대대 편제로 창설된 미국해병대는 약 2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군이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의 군사력 통합 논의 시 육·해군을 비롯한 군과 국방예산을 절감하려는 정치권의 집중 견제를 받는 등 몇 번의 생존 위기를 겪었다.⁶⁾ 미국해병대는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함대보병으로써 해군의 현시를 지원하고, 유사시 적진으로 상륙하여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 시대에는 전 세계 분쟁해결사로 거듭나, 다목적 군, 상시 준비된 군, 미 육·해·공군의 상륙구성부대로서의 역할과 기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⁷⁾

미국해병대가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구축하게 된 배경에는 제22대 사령관 슈업 대장(David M Shoup)이 1962년 12월 발령한 해병대 명령(Marine Corps Order) 3120.3에 의거 시행된 공지기동부대(MAGTF)로의 전투지휘체계 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 공지기동부대(MAGTF)란 용어는 모든 군사작전 형태에서 미국해병대에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휘세대(CE)를 중심으로 지상전투제대(GCE), 항공전투제대(ACE), 전투근무지원제대(CSSE)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참조). 이는 각각의 지휘체계를 가진 지상군 및 항공제대를 전투작전 혹은 교육훈련을 위해 단일 지휘체계를 가진 기동부대로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미국해병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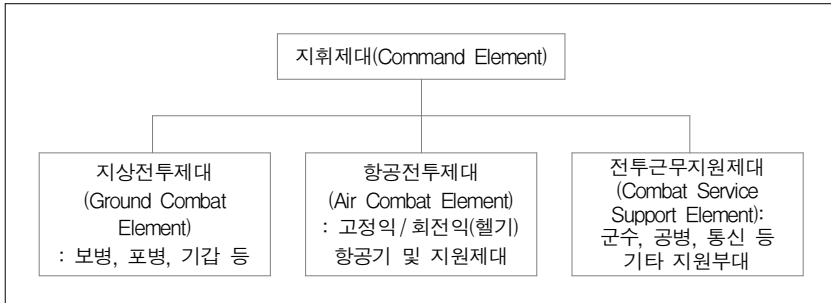
6) 미 해병대 존립투쟁과 관련해서는, 이갑진, 「미 해병대 존립투쟁 100년의 고찰」, 『전략논단』 통권 제18호, 2013년 가을 겨울호, 172~201쪽을 참고할 것.

7) Chester G. Hearn,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London: A Salamander Book, 2002), p.7.

8) Edwin H. Simmons, *The United States Marines: A History*(Annapolis, ML: Naval Institute Press, 2003), p.237.

각 제대의 전투력을 유사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1960년대 이후의 모든 위기 및 상황발생지역에 공지기동부대로 편성, 투입하고 있다.⁹⁾

〈그림 1〉 미국해병대 공지기동부대 구조



※ 출처: Wikipedia, “Marine Air-Ground Task Force”, <http://en.wikipedia.com>(검색일자: 2014. 7. 15).

이 조직은 1962년 공식화된 이후, 초기에는 해병원정군(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 사단규모), 해병원정여단(MEB: Marine Expeditionary Brigade, 여단규모)로 명명되었다가, 한동안 ‘원정(Expeditionary)’이란 단어가 지닌 타국에 대한 정복 이미지 때문에 ‘상륙(Amphibious)’으로 대체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거쳐¹⁰⁾, 1983년 4월에 해병공지기동부대 사령부가 창설되고, 용어도 다시 ‘원정(Expeditionary)’으로 환언되면서, 제대별 명칭도 해병원정군(MEF), 해병원정여단(MEB), 해병원정부대(MEU), 특수 목적 공지기동부대(SPMAGTF: Special Purpose MAGTF) 등으로 변경되었다.¹¹⁾ 1962년 미국해병대 명령으로 시행된 공지기동부대는

9) International and Operational Law Branch, *Deployed Marine Air-Ground Task Force Judge Advocate Handbook*(Washington, DC, April 2013), p.1-1.

10) L. L. Weeks & J. E. Toth, *Improving Operational Capabilities: The Marine Air-Ground Task Force Headquarters*(Washington, D.C: Advanced Amphibious Study Group Concept Paper, May 1982) 등 참고.

11) Global Security Organization, “Marine Air-Ground Task Force(MAGTF)”,

미국해병대가 향후에도 지속 유지할 전투지휘조직체계이며, 한국해병대가 추구하는 미래형 부대구조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약 380여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어,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움으로서, 현재는 약 29,0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해병대 역시 미국해병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서 철군하면서, 타군과 정치권의 견제를 받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1973년 10월 10일 해군예하에 지휘·통제되고, 1958년 창설된 항공부대도 해체되어 장비와 인원, 기지 등이 모두 해군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19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고, 1992년 12월 1일에는 한미연합해병대사령부가 창설되어, 유사시 한국의 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0년 연평도 북한군 포격도발을 계기로, 2011년 6월 23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등 해병대 지휘관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0월 15일부로 시행되었다.¹²⁾ 또한 ‘국방개혁 2020’대신에 ‘국방개혁 307 계획’이 수립되면서, 해병대사 직할항공단 창설이 승인되어,¹³⁾ 전투력이 보완된 국가전략기동부대 임무수행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해병대가 공지기동부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사료된다. 이때부터 이런 주장이 구전이나 해병대 자체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에서 다루어지다가, 해병대사령부가 이를 장기 군구조 개편목표로 공식 채택한 것은 2001년 『해병대 VISION 2025』¹⁴⁾를 발간하면서이다. 당시 한국해병대사령부가 제시한 공지기동부대 편성개념은 다음 <표 1>과 같다.

www.globalsecurity.org(검색일자: 2014. 7. 15).

12)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 “10월 15일,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법안 시행”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검색일자: 2014. 7. 28.

13) <연합뉴스>, “軍, 해병대사 직할 항공단 창설 추진,” 입력: 2011. 3. 3. 11:00시.

14)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VISION 2025 New Warrior 21: 공지기동해병대 건설』,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2001.

〈표 1〉 한국해병대 공지기동부대 편성개념

구 분	지상전투제대	항공전투제대	군수지원대대	정보지원대대
해병기동군	사단급	항공단급	지원단급	대대급
해병기동여단	연대급	대대급	대대급	중대급
해병기동단	대대급	중대급	중대급	소대급

※ 출처: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VISION 2025 New Warrior 21: 공지기동해병대 건설』,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2001, 64쪽.

2012년 6월 합동군무회의와 국방부장관의 최종 재가를 거쳐, 상륙기동헬기 40여대를 2017년부터 해병대 편제로 전력화하기로 결정¹⁵⁾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암중의 노력이 있었다. 해병대 자체 항공 전력을 되찾기 위해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전우회, 그리고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력투구가 있었다.¹⁶⁾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부터 해병대 자체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장감시체계와 정밀타격수단이 고도로 발달한 현 시대의 상륙작전간 적지로의 강제진입작전간 항공자산이 고정익이 아닌 회전익 항공기만으로는 상륙군의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해병대 MAGTF 구조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배경과 원칙을 알고, 주어진 여건 속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15) 오종택, “해병대, 2017년 이후 기동헬기 36대 확보... ‘항공단’ 창설,” <뉴스스>, 입력: 2012. 06. 04.

16) 예를 들면, 전임 해병대사령관 이갑진 예)해병중장의 글 대부분에는 거의 빠짐없이 공지기동해병대 건설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갑진, “한미 연합해병전력의 운용에 대한 고찰,” 해병대전략연구소, 『전략총서 1권: 국민속의 해병대』, 상지피앤아이, 2008, 166~167쪽.

나. Alfred D. Chandler의 전략과 구조 이론

첸들러는 경영학 분야 역사학자로 분류되지만, 그가 광범위한 자료들을 모집하여 정립한 이론들은 사업관리,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그리고 역사학 등 사회과학 전 분야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¹⁷⁾ 그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전문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십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저서 중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등 당시 미국의 4개 대기업 성장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분석하여, 분산 관리구조가 출현한 배경을 제시한 역사적 연구 산물이 바로 『전략과 구조』이다. 이는 기업이 조직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아이디어로 정리한 것이다.¹⁸⁾ 여기서 그는 미국 기업의 분산된 관리구조는 협력적 성장전략의 결과로 발생하는 관리 활동 증가와 자원의 필요성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성장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구조는 전략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저서에서 그는 구조를 ‘조직 설계’로, 전략을 ‘기업의 장기 목표’로 정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책을 선정하고, 방책 달성에 필요한 자원은 효과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첸들러가 제시한, 기업 구조정립 조치, 내용 및 효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7) M. H. Rose, “Alfred DuPont Chandler, Jr., 1918~2007: an Introduction”, *Enterprise and Society*, Vol.9, No.3(2008), pp.405~410.

18) Douglas Martin, “Alfred D. Chandler Jr., a Business Historian, Dies at 88”, *The New York Times*(May 12, 2007).

19) John Hendry & Simon Pitt, “SWP 23/89 Business strategy and business history: a review and prospectus(October 1988),” in <http://dspace.lib.cranfield.ac.uk> (검색일자: 2014. 7. 11).

〈표 2〉 첸들러의 조직혁신 요소

구 분	조 치	내 용	효 과
적절한 (창조적) 대 응	기능지휘소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단위들의 행정을 통합하기 위한 관리조직 신설 • 공장이나 사무실 등의 지역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지휘소와 현장 간 명령과 소통 계통의 명확성
	중앙지휘소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확대, 기능지휘소 통제조직 필요 • 중앙책임자는 기능지휘소의 기술, 수요, 재정, 법적소요 등 전 기능 숙지 / 지원 • 체계적 정책수립/자원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 • 가용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창조적 혁 신	혁신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역사적 상황(①) • 규모: 생산량, 자본, 인력증가 등(②) 	
	혁신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지역 확장(③) • 전술 및 전략결정의 복잡성(③) • 고위 경영자 교육/훈련(④) • 조직은 신전략의 행정소요 충족(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통합: 지역적 분산의 문제점 해소 • 운용은 장기기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혁신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경영자: 장기 운용책임 최소화(⑤) • 중앙지휘소 경영자에게 장기기획관련 정보제공(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원 활용 및 신 자원 획득 • 조정/평가문제 완화

※ 출처 : Alfred D. Chandler,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62), pp.283~314.

첸들러는 표의 구분 란에 명시된 ‘적절한(창조적) 대응’은 기업이 가진 고유의 기능(구매, 판매, 연구 등)이 아닌 특수한 환경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가 하는 것이며, ‘창조적 혁신’은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최고 경영자에게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첸들러의 이론을 활용하여, 미국해병대가 전투지휘체계를 MAGTF로 변경한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1960년 대 초반 당시 혹은 그 시기 이전의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미 해병대가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 Alfred D. Chandler,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62), pp.284~299.

본 연구의 목적은 미 해병대의 전투지휘체계 조직혁신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첸들러의 이론 중 창조적 혁신관련 조치의 내용을 해당번호별로 미국해병대 당시 실정에 맞는 용어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표에 명시된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① 1960년대 미국해병대 운용 필요성, ② 전투력 및 조직현황, ③ 당시 미국해병대의 임무와 장차 예상되는 임무(장기 전략), ④ MAGTF 조직과 혁신(정착)과정, ⑤ 혁신의 의미: 미 해병대 운용이나 조직발전에 미친 영향 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첸들러 이론의 핵심인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것이므로, ③ 미 해병대의 당시 임무와 장차 예상되는 임무가 MAGTF 지휘조직체계로의 변경을 결정한 주 영향요인이 된다. 따라서 ①, ②는 ③의 배경 요인이므로, 미국해병대의 특수한 전투지휘 환경으로 통합할 수 있고, ⑤는 분석 및 평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첸들러의 이론 중 적절한(창조적) 대응은 MAGTF 전투지휘조직체계와 하부 각 구성군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3. MAGTF 전투지휘체계 분석 및 평가

가. 미국해병대의 특수한 전투지휘 환경

1) 미국해병대 운용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동서냉전체제로 인해, 유럽에서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간 군사동맹체제의 대립이,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쌍무조약에 근거한 대립이, 기타 중동·아프리카 등 각 지역에서는 중·저강도 분쟁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 미소 양국 간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던 전쟁수행개념이 상호공멸의 위험성 때문에 약화되고, 대신 재래식 수단을 사용한 제한전쟁 가능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²¹⁾ 소련의 핵능력이 미국과 버금가거나 지상발사 핵무기(ICBM)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양국은 유럽이던 아시아 지역이던, 진영 간 전쟁발발 시 상호공멸이라고 인식하면서, 지역분쟁은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1950년 발표된 NSC-68에 명시된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인 ‘자유주의 국가들의 영토와 생존 보장’을 위해, 냉전(Cold War), 제한전(Limited War), 그리고 통상의 재래식 전쟁(General War)에 각각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쟁기획자들은 냉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분야에서는 소련의 핵 선제사용과 제1격 핵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하고, 제한전과 통상의 재래식 전쟁을 위해서는 ‘일반 목적군(General Purpose Forces)’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62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 가능한 2개의 대규모 전쟁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2½전쟁’ 기획안²²⁾을 채택하였다.²³⁾ 이 기획안 수행을 위한 미군의 전력할당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1) 이표규, 『국가무장론』, 한국학술정보(주), 2009, 75~77쪽.

22) ‘2½’ 전쟁 중 ‘2’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유럽 공격과 중국의 대아시아 공격으로 고정되나, ‘½’은 베트남에서의 국가전복(존슨 행정부), 아시아 이외 지역(닉슨 행정부 초기)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제한된 위기 상황(카터 행정부 초기) 등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Robert P. Haffa, *Planning U.S. Forc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8), pp.77~80.

23) 이표규, 앞의 책, 92쪽.

〈표 3〉 미국의 '2½' 전쟁 기획안의 전력 배비

구 분	유럽(1 War)	아시아(2 War)	위기(½ War)
미국본토(CONUS)	4	3	-
배치된 군	5	4	-
전략예비	-	-	3⅓
예 비	8	-	1
동맹군의 지원	적극	제한	약간

※ 출처 : Robert P. Haffa, *Planning U.S. Forces*(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8), p.78.

로버트 하파(Robert P. Haffa)가 배분한 전력 배비개념에 비추어, 당시 미국해병대 3개 사단과 항공단의 임무를 부대명칭에 의거 판단해 보면, 미해병대대서양사(MARFORLANT)는 본토에서 유럽의 위기에 우선대응하고, 오키나와와 하와이를 주 기지로 하는 미해병대태평양사(MARFORPAC)는 아시아, 나머지 1개 사단과 항공단은 전략예비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전쟁기획안은 1969년 '1 ½전쟁'개념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다. 하파는 전쟁기획안 중 위기에 대처하는 '½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제한된 위기 상황발생지역에 신속히 배치하는데 필요한 항공 및 해상 수송지원 장비 확보 등 전략기동체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이의 개념적 범위는 베트남지역에서의 대 게릴라 작전, 한반도 이외 지역 및 중동에서 발생하는 제한된 위기상황 등 다양한 지역과 분쟁수준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서방자유진영의 핵심 축으로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전력준비가 필수적이었다.²⁵⁾

24) John S. Lowery, "HALF WAR: Planning U.S. Rapid Deployment Forces to Meet a Limited Contingency, 1960-1983", *Marine Corps Gazette*(September 1985), p.82.

25) Robert P. Haffa, *op. cit.*, pp.77~80.

하파는 제한된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기 식별. 만일 분쟁발생지역이 미국 이해관계에 치명적이면, 일반목적 위기대응군보다는 해당지역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담 군을 편성, 투입하여야 한다.

둘째, 단일 사령부예하. 다양한 성격의 군 통합 편성. 단일군으로 편성되어 특정 역량을 갖추지 못한 투입부대는 전투력 부족을 경험할 것이다. 군종간 경쟁이 부대편성 결정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합동기동군을 다른 사령부에 편성된 부대로 운용하면 실패하기 쉽다.

셋째, 정확한 핵심 위협 판단. 잘못된 부대 투입과 대처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지만, 위기상황 대처에 얽매어 더 큰 위협을 간과한다면 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다.

넷째, 적절한 지원. 제한된 위기대응군은 편제 혹은 전담지원 항공 및 해상수송 능력, 적정수준의 사전배치,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 그리고 세력투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변경되는 전략 개념 중시. 미국은 다양한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으므로, 위협의 변화에 따라 전략수행 개념도 변경하여야 한다.²⁶⁾

이러한 하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면, 1960년대 초 미국의 ‘2½ 전쟁’ 기획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은 해병대였다. 왜냐하면, 미국해군의 해상수송능력과 결합된 미국해병대는 최고로 훈련된 보병부대뿐만 아니라 자체 항공과 군수지원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스파크(Michael Spark)는 이러한 미국해병대의 능력을 인식하고, 대 게릴라전, 저강도 분쟁 수행에 있어, “미 해병대보다 더 장비되고 조직된 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No Force in the world today is better equipped and organized for counter-guerrilla operations than the US Marine Corps)”²⁷⁾고

26) John S Lowery, *op. cit.*, p.82.

27) Michael Spark, “Guerrillas, Small Wars, and Marines”, *Marine Corps Gazette*

강조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미국해병대는, 1950년대 후반에도 해군의 해상수송능력을 활용, 1958년 7월의 레바논 사태 등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주요 작전에서 수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케네디 행정부의 쿠바봉쇄명령에 따라, 미 제2해병사단은 미 해군 제2함대 함정에 탑재되어,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섬 근처 상륙대기지점에 8일 만에 전개함으로써²⁸⁾, 핵시대에서도 그 가치의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 해군과 해병대는 자체 능력만으로도 유사시 미국이 필요한 어느 지역에서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미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 독점으로 미 육군과 공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제한전쟁 발발 시 재래식 전력 대응을 위한 타격사령부(Strike Command)를 1961년에 창설하였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하지 않아, 타격사령부 예하 부대는 육군 전략기동군과 공군의 혼성타격비행단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합동작전예규 정비미흡과 할당된 지역이나 부여되는 임무가 적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출전대기사령부(Readiness Command)로 전환되기 직전인 1969년에 이르러서는 소규모 위기에 파병가능한 극소수의 전력만 남아 있었다.²⁹⁾

결론적으로 미국해군의 해상기동능력과 결합된 미국해병대는 타군의 지원 없이, 자체 능력으로만 일정수준의 분쟁은 해결 가능하였으며, 그 어느 군보다 제한된 위기상황발생에 대응하는 전투력이 우수하였다. 즉, 미국해병대는 1960년대 초 ‘2½전쟁’ 중 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 게릴라 전쟁이나 중·저강도 지역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군이었다. 따라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전면 핵전쟁의 가능성이

(Jan. 1962), p.50.

28) 이표규, 앞의 책, 100쪽.

29) Robert P. Haffa, *op. cit.*, pp.82~83.

현저히 약화된 1960년대 초반, 미국해병대는 미국의 신속대응부대로서, 중·저강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가장 준비된 군이었다.

2) 미 해병대 전투력 및 조직 현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종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등장으로 상륙작전의 유용성이 급격하게 퇴색되었다. 그 결과 미국해병대는 해체와 삼군으로의 통합 압력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해병대는 각고의 노력과 국민과 의회의 도움으로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수정한 법률 416호, 일명 ‘해병대 법(Marine Corps Bill)’에 따라 3개 사단과 3개 비행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³⁰⁾

하지만 재편성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제2차 세계대전 시 465,053명에 달했던 병력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초 겨우 74,279명에 불과, 평시 50%의 인력이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부산만 남겨놓고 북한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해병대 1개 여단병력을 파병하는데, 제1해병사단 전 병력이 소요되었으며, 1950년 9월의 인천상륙작전을 위해서는 해병 예비사단을 동원하고, 유럽을 맡고 있던 제2해병사단에서 일부대대를 차출하기까지 하였다. 1952년에는 중국군의 투입으로 고착된 한반도 전선을 타파하기 위해 제3해병사단과 제3항공단을 상비사단으로 개편하였다. 이 결과, 미 해병대는 3개 보병사단과 3개 항공사단을 상비로, 1개 보병사단과 1개 비행사단을 예비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6.25전쟁이 휴전된 1953년에는 병력이 250,000명까지 증가되었다.³¹⁾

그러나 미 해병대 병력과 전투력 보존의 위기는 계속되었다. 첫 번째 위기는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이의 한 예로 1956년 4월 8일

30) 이표규, 앞의 책, 99쪽.

31) John Whiteclay Chambers II, et al. (eds),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Military Histo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416.

훈련이 계획되어 있지 않던 일요일 오후에 교관의 지시에 의거 남 캐롤라이나 파리스 섬(Parris Island)의 'Ribbon Creek' 계곡에서 수영하던 1개 소대 중 6명이 익사한 사고를 들 수 있다.³²⁾ 이 사고 후, 미 의회의 해병대 신병훈련 체계 조사를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 받았으며, 추가적인 모집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두 번째 위기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새로운 방위정책(New Look Defense Policy)에 따른 재래식 병력과 장비 감축 정책이다. 1950년대 말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해병대 병력과 조직을 연대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 DePauw 대학 육군 ROTC 출신의 슈업(David Monroe Shoup) 소장을 1960년 1월 1일부로 제22대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슈업 대장은 기존 M1 소총을 M14 7.62mm 소총으로, 구식 기관총을 M60으로 교체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 팬텀기(고정익) 조종사 양성을 위한 해병항공후보생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오히려 해병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슈업 대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로 하여금 임기 종료 전 3개 해병사단과 3개 해병항공단을 존속시키고, 총병력 175,000명 유지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³³⁾

이렇게 어렵게 3개 보병사단과 3개 항공단을 존속시키게 된 미 해병대의 1960년대 초 배치 및 조직현황은 <그림 2> 미 해병대 부대구조 및 기지 현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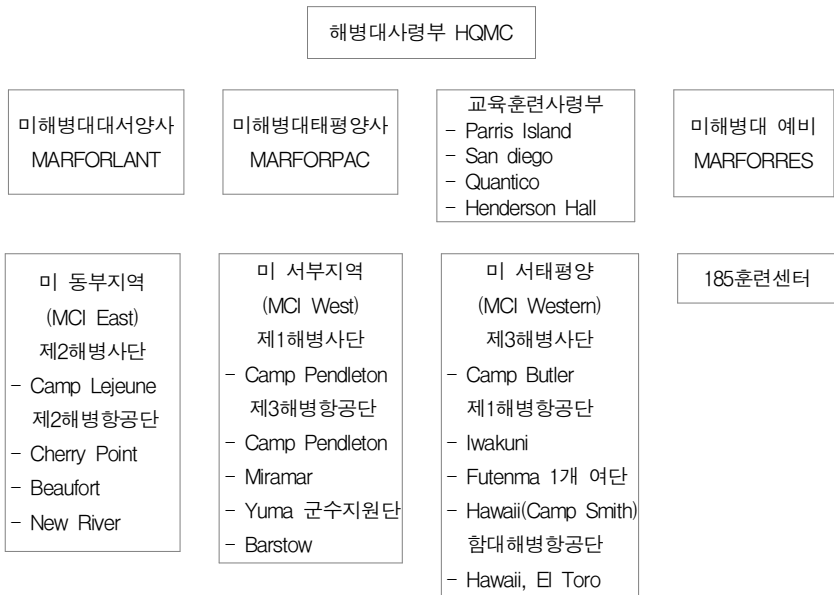
상기와 같은 전투력 및 조직에 추가하여, 1950년 대 이후 미국해병대

32) Victor Keith. Fleming, "The Marine Corps in Crisis: The Institutional Response to the Ribbon Creek Incident", *PH D Thesis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4), pp.56~74 참고.

33) Chester G. Hearn, *op. cit.*, p.166.

지상군 및 항공단은 투발 가능한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해병대가 ‘2½ 전쟁’, 즉 동구진영의 소련과의 전면전 혹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의 전쟁’ 수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미 해병대가 유지한 핵능력의 계량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상군과 항공단이 보유한 핵심 장비들은 1950년대 가장 경제적인 적 격멸 수단이었던 핵무기 투발이 가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미국해병대의 핵무기 보유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³⁴⁾ 결론적으로 해병대 병력과 조직은 미국의 전쟁 기획안인 ‘2½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장비되고 조직되어 있었다.

〈그림 2〉 미국해병대 부대구조 및 조직 현황



※ 출처 : Sean D Griffin, “Bases and Stations,” *Marine Corps Gazette* (November 2006), p.67.

34) L.G. Karch, “The MAGTF and Nuclear War”, *Marine Corps Gazette*(June 1983), pp.35~37.

나. 미국해병대의 현행 및 장차 예상되는 임무

미국해병대가 공식 창설된 1775년 이전에도 워싱턴 주 등 각 주 해군들은 함정을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아니라, 함정에 승선하여 함대함 전투를 수행하는 병력을 해병(Marine)으로, 전자를 수병(Sailor)으로 부르며, 대부분 함대해병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제2차 대륙의회가 해군위원회와 상의하여, 1775년 11월 10일 연방군 해병대 2개 대대를 창설한 이유는 현재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 위치하고 있던 영국의 당시 해군기지를 파괴하고, 영국군의 식량과 보급품들을 탈취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³⁵⁾ 이처럼 초기 해병대의 임무는 함정에 승선하여 적함의 병력들과 육박전, 바다 건너 적지로 상륙하여 적 해군기지 공격 및 파괴, 적의 식량과 보급품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 임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상륙돌격에 의한 전진기지 확보, 제2차 세계대전 시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상륙돌격작전을 주로하며, 함대 경계 등 유사 임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³⁶⁾ 이러한 해병대의 임무는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국제 안보정세변화에 따른 미국의 역할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해병대의 임무는 역사학자인 알란 밀레(Allan R. Millett)의 분석에 따르면, 본질적 임무는 상륙돌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주로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군 역할 수행으로 볼 수 있다<표 4 참조>.

35) Wikipedi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http://en.wikipedia.org> (검색일자: 2014. 7. 15).

36) Allan R. Millett, *Semper Fidel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0), pp.xv~xvii.

〈표 4〉 미국해병대의 임무변화

구 분	기 간	임 무
1단계	독립전쟁 / 그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함대 경계와 해안경비 임무 ◆ 보조: 함대함 전투를 위한 보병 제공 혹은 상륙작전
2단계	1899~1941 (군사적 개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상륙돌격에 의한 전진기지 확보 ◆ 보조: 함대 경계와 전진기지 방호 제공
	1942~1945 (2차 세계대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유럽과 태평양 전역에서 상륙돌격작전 수행 (함대경계/전진기지 방호는 주로 후속 상륙한 육군 등 타군에 이전되었음)
3단계	2차 세계대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국제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군 ◆ 본질적 임무: 상륙돌격작전 수행

※ 출처 : Allan R. Millett, *Semper Fidel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0), pp.xv~xvii.

이러한 미국해병대 임무 변화의 틀 속에, ‘구조는 전략에 따른다.’는 켈들러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MAGTF 조직으로 변경한 1960년대 초 미국해병대가 수행하고 있던 임무와 그 당시 기획자들이 판단한 안보환경, 전쟁기획안 변화 등을 고려한 향후 예상되는 임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해병대의 본질적 임무는 상륙돌격작전 수행이다. 이는 미국의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the National Security Act 1947)에,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지상, 해상, 공중이라는 고유의 책임영역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미국해병대는 공간상 책임지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해군 전역에 필수적인 지상 작전 수행을 위해 조직, 훈련, 그리고 장비될 것이다”로 명시되어 기존의 해군전진기지 확보/방어, 상륙돌격작전, 그리고 상륙작전과 연결된 지상 작전 수행으로 그 임무가 한정되었다.³⁷⁾ 이는

37) I. E. McMillian, “A Suggested New Role for the Navy-Marine Corps Team”, *Marine Corps Gazette*(Oct. 1949), p.10.

미국해병대가 상륙작전 전담조직이란 의미이며,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당시 미국해병대가 가정한 제한전쟁의 형태로는 주로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진영이 수행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침투, 쿠데타, 무장 봉기, 국가 전복을 노리는 해방주의자들의 태동, 게릴라, 위성국에 의한 침공 등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의 주요 임무는 ① 억제군 현시, ② 미국 및 동맹국의 국민 보호, ③ 미국 국가 및 경제적 이해관계 보호, ④ 시민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우방국 지원, ⑤ 군수, 항공 혹은 무기 지원, ⑥ 다양한 규모의 군사작전 수행, ⑦ 우방국 및 동맹국 보호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작전단계는 ① 해군작전: 세계의 전략적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위기 발생지역으로 이동, ② 해병대 상륙작전: 제한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안으로 세력투사, ③ 해병대와 해군작전 지원을 위한 제한된 지상군 및 공군 전개, ④ 전장 확대 시 지상 작전과 민군지원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지상군 증강, ⑤ 지상 작전 간 항공 우세 확보, ⑥ 합동작전으로 전환 등의 순으로 가정하고 있다.³⁸⁾

결론적으로 핵전쟁이던,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던, 제한전쟁이던 간에 미국해병대가 수행해야 할 작전의 양상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팽창정책과 국가전복 위협에 시달리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 이해관계 방호를 위해 필요한 특정지역에 전개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작전은 해당국 연안을 통해 세력을 투사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38) J. A. Donovan, "Pattern for Limited War", *Marine Corps Gazette*(Aug. 1960), pp.11~18.

다. MAGTF 조직편성과 정착과정

1) MAGTF 조직편성

지상군과 항공력의 결합 필요성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가까운 미래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다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기간으로 60일 이내와 하룻밤(One Night)이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전자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장이 육군 참모총장 직을 이임하면서 제기하였고, 후자는 당시 미국 공군대학 총장이었던 앤더슨(Orval A. Anderson)소장이 핵시대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하룻밤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판결난다고 주장한 것에 유래되었다.³⁹⁾

이러한 미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1948년 3월 17일 의회에 군사력 복원을 요구하며, 대외정책 지원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제안으로 각 군은 인가된 병력 보충과 함께 타격군(Striking Force) 창설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 조직의 핵심 개념은 적의 침략전쟁 의지를 약화시키고, 실제 전쟁의 기습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 해군, 공군을 단일사령부 예하에 편성하여, 유사시 강력한 보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⁴⁰⁾ 연이은 6·25 전쟁 발발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 미국의 타격군은 1961년도에 가서야 창설되었으며, 합동군 운용개념은 1986년 레이건(Ronald Reagan) 당시 대통령이 골드워터-니콜스 법(The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39) I. E. McMillian, *op. cit.*, p.11~12.

40) I. E. McMillian, *ibid.*, p.13.

Act of 1986)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⁴¹⁾ 합동군 편성은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해병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향의 지상군과 항공세력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전략가 리델하트(B. H. Liddell Hart)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해병대잡지에 기고한 ‘해병대와 전략(Marines and Strategy)’에서, 소련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 고착상태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는 미국해병대의 역할과 가치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의 이유로 그는 해군과 결합된 기동력에 추가하여, 미국해병대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항공단은 적의 침략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해병대가 지상군과 항공력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적절한 규모로는 자체 지속능력과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단급을 제시하고 있다.⁴²⁾

리델하트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전략가들과 정책가들이 MAGTF 형 지휘체계 정립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는 1960년 1월 해병대사령관으로 취임한 슈압 대장이었다. “지상군과 항공군의 합병은 바람직하며, 만일 달성된다면 양 제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명령체계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⁴³⁾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슈압 대장은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양개 사령부에 검토를 명하였다. 그의 명에 의거, 미해병대대서양사 및 태평양사에서 지상군과 항공단을 결합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미대서양함대해병부대사

41) Wikipedia, “Goldwater-Nichols Act”, <http://en.wikipedia.org>(검색일자: 2014. 8. 18).

42) B. H. Liddell Hart, “Marines and Strategy”, *Marine Corps Gazette*(Jul. 1960), pp.16~17.

43)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Part Two: Programs to Improve Readiness”, *Marine Corps Gazette*(Nov. 1960), p.42.

(FMFLant)와 대서양함대해병부대항공사(Air-FMFLant)의 초기 연구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슈압 대장은 1960년 5월 15일까지 부대훈련 실험결과를 제출하고, 7월 1일까지 지상군과 항공단의 지휘체계 통합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⁴⁴⁾ 그 후 미해병대 대서양사 및 태평양사의 부대 실험을 거쳐, MAGTF 전투지휘체계는 1962년 12월 해병대명령 3120.3에 의거 공식 채택되었다.

2) 혁신(정착) 과정

미국해병대는 MAGTF 전투지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1962년 12월 해병대 명령 3120.3에 의거 공식적으로 MAGTF 체제가 시행되었지만, 이 명령 발령이전에 미해병대태평양사와 대서양사는 각각의 임무와 배치상태, 그리고 지역안보 상황 등을 고려, 적절한 MAGTF 지휘체계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혁신 과정은 명령 발령전과 발령시점, 그리고 그 후 발전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 발령 전 단계

1960년 2월 8일, 해병대사령관 슈압 대장의 지시에 의거, 미해병대대서양사에서는 지상군과 항공단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사시 미대서양해병부대항공사의 기능과 업무는 전자가 인수하였다. 통합 후, 유사시 신속전개를 위한 해병원정군(Marine Expeditionary Force: MEF) 사령부와 MEF 전개 시 후방제대 지휘기능을 가진 미대서양함대해병부대사관 두 개의 지휘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두 개의 조직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합병이후에도 후반기 6개월 동안 새로이 편성된 통합참모단(Integrated Staff)은 추가적인 검증을 지속하였다. 그

44)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ibid.*, p.42.

결과 초기 통합의 목적인 준비태세는 증진되었으며, 언제든지 배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⁴⁵⁾

지중해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새로운 전투지휘체계에 의거한 미해병 대대서양사의 단계별 부대 배비 계획은 아래와 같다(〈그림2 참고〉).

1단계: 함대 항모에 탑재된 해군과 해병대 항공전대의 항공지원 하, 미 제6함대와 함께 해당지역에 배비된 BLT(대대상륙단: Battalion Landing Team)가 위기발생 지역에 전개

2단계: 미 제2해병사단 Camp Lejeune 1개 BLT 추가 지원준비 및 해군 및 해병항공전대 증파, 해병대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원정부대사령부(HQs of Marine Expeditionary Unit: MEU HQs) 투입준비, 위기지역 전개시점은 상황에 따라 최초 BLT 투입과 동시 혹은 1개 BLT 추가 전개 시

3단계: 미제2해병사단 Camp Lejeune에서 해병준장이 지휘하는 해병원정여단사령부(HQs of Marine Expeditionary Brigade: MEB HQs) 투입준비, 위기지역 전개시점은 상황에 따라 최초 RLТ(연대상륙단: Regiment Landing Team)투입과 동시 혹은 추가 지상군 및 항공단(Marine Air Group: MAG) 투입 시

4단계: 위기가 고조되어, 추가 전력투입 필요시는 해병사단 및 항공사단(Marine Air Wing: MAW) 투입, 사전 함정에 적재된 군수물자를 활용, 위기지역 상시 지원태세 유지⁴⁶⁾

상기의 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미해병대대서양사는 MAGTF 전투지휘조직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인 1960년대 초 부대 실험과정에서 이미 현대와 거의 유사한 부대전개 및 전투지휘체계를 완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해병대태평양사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 배치된 전력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세 개의 공지부대로 편성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서태평양 팀(WestPac Team): 미 제3해병사단/제1항공사단(MAW), 일본 오키나와

45)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ibid.*, p.42.

46)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ibid.*, p.45.

중태평양 팀(MidPac Team): 미 제1해병여단/항공단, 하와이 오아후(Oahu)

동태평양 팀(EastPac Team): 미 제1해병사단/제3항공사단(MAW), 캘리포니아 Camp Pendleton⁴⁷⁾

이처럼 미해병대태평양사는 지역별 배치를 기준으로, 지상군과 항공단을 연결시켰으며, 해병대 명령 발효이전인 1960년 초기 그룹화단계에서는 미해병대대서양사와 같은 MEU, MEB, MEF 같은 단위제대별 편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 세 개의 팀은 근무지원단, 상륙돌격장갑차(LVTs), 전차, 공병 등으로 증강 편성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사막 29 Palms에서 포병 및 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캠프 Smith의 미 제1항공합포연락중대(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는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동맹군과 미 지상군과의 협조에 필요한 통신 및 통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⁴⁸⁾

1960년대 당시 유럽을 담당하는 미해병대대서양사가 미제2해병사단과 항공사단으로 단일화되어 있던 것과 달리, 태평양에서는 광범위하게 분산 배치된 부대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총 3개의 지휘체계를 구성하였다. 캠프 Smith에 위치한 미태평양함대해병부대사는 평시 지휘 및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제1통제기구로 해병원정군(MEF)사령부 편성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행정, 그리고 군수지원 협조를 책임지고 있었다. 엘 토로(El Toro)에 위치한 미해병대태평양함대항공사는 제2통제기구로 항공부대와 관련 업무, 항공부대 보급 및 예산, 각개 병사 및 부대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태평양함대해병부대사(FMFPACWEST)에서 파견된 동경의 제3통제기구는 서태평양

47)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Part One: Fleet Marine Forces, Pacific", *Marine Corps Gazette*(Dec. 1960), p.40.

48)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ibid.*, p.40.

해병들에 대한 보급, 우편, 수송, 그리고 의전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에 배치된 약 6만에 이르는 해병들에 대한 지휘관계는 복잡하였지만, 훈련과 연습을 통해 준비태세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⁴⁹⁾

나) 발령 시점

미해병대대서양사와 태평양사의 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MAGTF 전투지휘조직체계 기초가 마련되자, 당시 미 해병대사령관 슈압 대장은 해병대명령 3120.3을 공식 발령하였다. 1963년 2월호 Marine Corps Gazette에서는 새롭게 편성된 공지기동군 즉 MAGTF 지휘체계를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슈압 대장은 복잡한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다양해지는 해병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하나의 큰 팀을 형성하는 것 (Preferred Solution is One Big Team)”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⁵⁰⁾ 동일 호에 게재된 MAGTF 지휘체계의 사용과 단계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특별지휘사령부가 편성된 공지기동부대는 해병항공과 지상군으로 구성된 전투군이 임무를 수행할 때만 필요하다. 단순히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부대가 지상군에, 지상경계부대와 군수제대가 항공부대에 할당될 때, 특별지휘사령부는 필요하지 않다.

지상군 사단과 비행사단으로 구성된 팀은 어떤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1개 연대상륙단(RLT), 비행단(MAG)과 일부 부대근무연대(Force Service Regiment)로 구성된 해병원정여단은 제한된 전투임무 수행만 가능하며, 지속적인 전투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병원정군(MEF)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때 해병원정군은

49) Report from the Ready Forces, *ibid.*, pp.40~41.

50) Air-Ground Task Forces, “Preferred Solution is One Big Team, CMC Says”, *Marine Corps Gazette*(Feb. 1963), p.7.

지상군사단과 비행사단으로 구성된 팀과 부대근무연대, 공병 등 전투지원부대들로 편성된다.

대규모 전쟁 수행을 위한 해병원정군단(Marine Expeditionary Corps: MEC)은 하나 이상의 지상군 제대를 포함한다.

해병원정부대(Marine Expeditionary Unit)는 특수상황에 대비해 1개 대대상륙단과 고정익 및 헬기 전대로 구성되어 대령이 지휘한다. 특수상황이란 공세적 대공방어가 불필요하고, 활주로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극히 제한된 군수지원만 요구되는 환경을 말한다.

상기와 같은 임무제대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MEU와 MEB은 전투지속력이 약해 장기작전 수행이 제한된다. 그래도 편성한 이유는 위기 발생지역에 가장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다. 해병원정여단사령부는 임무를 고려, 부대예규와 행정처리,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한다.

명령에 명시된 공지기동부대사령부 편성목적은 지상군, 항공단, 그리고 전투근무지원제대를 상호 협조시키는데 필요한 합법적 작전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직은 예하 제대의 지휘체계와 임무 등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항공지휘관은 상황발생 지역에서 항공관련 시설들을 통제한다.

추가적인 지휘체계 편성은 추가적이고 고정적인 임무가 있을 때에만 편성한다.⁵¹⁾

다) 발전단계

명령 발령 후, 1965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한동안 추가적인 MAGTF 전투지휘체계 발전은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미 해병대가 한창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 및 부대 실험을 하던 1962년에는 베트남 군사고문관 약 4,000명 중 해병요원이 600여 명에 달했고,

51) Air-Ground Task Forces, *ibid.*, p.7.

그 후 1965년 3월 2일 미국이 참전을 선언한 이후에는 제9해병원정여단(MEB)을 시작으로 해병대 전 부대가 교대로 전쟁에 파견되어 추가적인 부대 실험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⁵²⁾ 미국해병대는 1973년 파리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74년 4월말에도 사이공으로부터의 미국인 철수지원임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전투지휘체계 발전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인 1975년 미대서양함대해병부대사예하 1개 MEU가 독일 북부 지역에서 노르웨이와의 첫 연합훈련을 시작한 후, 그 이후 규모가 차츰 증대되면서⁵³⁾ MAGTF 전투지휘체계 연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노력의 산물 중 하나가 1982년 5월 미국해병대 상륙연구단본부에서 발행한 『운용역량개선을 위한 개념서』이다. 동 개념서는 규모 및 편제장비 등의 면에서 대대급 부대의 전투능력은 지극히 제한되므로, 해병상륙군(Marine Amphibious Forces: MAF, 사단급), 해병상륙여단(MAB), 해병상륙부대(MAU, 연대급) 등 세 가지 규모의 전투지휘체계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MAF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전투력 축적과 위기상황대처가 용이하도록 작전기획과 작전운용전담 MAB을 각각 보유하도록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제대편성과 운용개념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연구와 지속적인 부대 실험을 통해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는 1990년대 들어 다시 ‘상륙(Amphibious)’에서 ‘원정(Expeditionary)’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기존의 MEF, MEB, MEU에 추가하여, 특수 임무, 작전, 그리고 연습을 위해 다양한 규모로 편성되는 특수목적 (Special Purpose) MAGTF를 추가하여,

52) Chester G. Hearn, *op. cit.*, pp.166~182.

53) 이표규, 앞의 책, 162쪽.

54) Advanced Amphibious Study Group Headquarters United States Marine Corps(AASGHQs), *Concept Paper: Improving Operational Capabilities: The Marine Air-Ground Task Force Headquarters*(May 1982), pp.1~16.

총 네 가지 전투지휘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⁵⁵⁾ 이들 각각의 조직은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지휘제대(CE), 지상전투제대(GCE), 항공전투제대(ACE), 전투근무지원제대(CSSE)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종료하고,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발표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유지를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⁵⁶⁾에 의거, 전투지휘조직체계는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000억불의 국방예산절감 및 육군과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해병대는 2011년의 202,000명에서 2017년까지 174,000명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투지휘체계도 MEU급을 기본으로, 대규모 전쟁보다는 국지전, 내전 등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SPMAGTF- CRs(Crisis Response)를 중심으로 대대 및 중대규모로 점차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⁵⁷⁾

라. 분석 및 평가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는 평상시의 군사력건설 즉 양병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작전수행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 연구에서 핵심자료로 활용된 미국해병대 발전 역사를 기록한 해병대잡지(Marine Corps Gazette)의 기록으로만 보면, MAGTF 전투지휘체계 정립은 미국 합참 등 상급부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당시 해병대가 처한 특수 환경, 조직 및 장비를 활용하여, 주어진 임무와 향후 예상되는

55) International and Operational Law Branch of the HQs of USMC, *Deployed Marine Air-Ground Task Force Judge Advocate Handbook*(April 2013), p.1.

56) US DoD,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January 2012).

57) Andrew Feickert, “Marine Corps Drawdown, Force Structure Initiatives, and Roles and Missi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 Research Service Report 7-5700*(January 9, 2014), pp.10~14.

임무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슈압 대장의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이러한 사령관의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맞는 최선의 조합을 찾으려던 미해병대대서양사와 태평양사의 부대 실험 노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해병대가 MAGTF 전투지휘체계 조직을 채택한 배경과 임무, 그리고 준비 및 정착과정을 첸들러가 『전략과 구조』에서 정립한 이론의 틀에 대입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를 <표 2> 첸들러의 조직 혁신요소에 비추어, 적절한(창조적) 대응과 창조적 혁신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적절한 대응측면에서는 첸들러의 이론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동일 효과를 추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첸들러가 제시한 기능지휘소와 중앙지휘소의 의미를 미국해병대 발전과정과 MAGTF 전투지휘체계에 대비해 보면, 아래와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능지휘소 신설측면이다. 첸들러는 기능지휘소가 공장이나 사무실 등의 미국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현장단위들의 행정을 통합하기 위한 관리조직이었다. 이를 미국해병대 조직에 비추어 보면, 창설 시 2개 대대 편제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헌법에서 보장한 3개 보병사단과 3개 비행사단 조직을 보장받기 까지 흥망과 쇠퇴를 거듭하며, 적절한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대대-연대(여단)-사단과 항공전대(Squadron)-항공단(Group)-항공사단(Wing) 등의 제대별 지휘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첸들러의 기능지휘소는 미국해병대 조직 확대에 따른 지상군과 항공군의 각 제대별 지휘제대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둘째, 중앙지휘소 신설측면이다. 첸들러의 중앙지휘소는 조직 확대에 따른 통제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조직이나,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는 위기나 상황발생 혹은 특정임무 수행에 필요한 임시 전투지휘조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전자는 기능지휘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통제하는 광역지휘소로 체계적 정책수립과 자원 할당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후자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된 부대 SOP나 작계, 훈련에 의거 상급사령부에서 할당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MAGTF 전투지휘체계가 기존지휘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용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중앙지휘소와 동일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는 유사하다.

첸들러의 이론 중 중앙지휘소를 미국해병대 조직에 굳이 대입하자면, 각 지역별 최고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미해병대대서양사나 태평양사에는 비유할 수 있지만, MAGTF 전투지휘체계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MAGTF 전투지휘체계는 위기의 규모나 임무의 성격에 따라 연대-여단-사단(군단)급 등 다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첸들러가 제시한 중앙지휘소와 동일한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평시 상설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유사시 변경, 언제든지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만든 준영구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첸들러의 창조적 혁신과정의 조치별 내용에 의거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를 분석해 보면, 그의 조건이나 과정은 전투지휘체계 조직개편 조건이나 과정 분석의 틀로 아무런 손색이 없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구조는 전략에 따른다’는 첸들러의 주장처럼, 미국해병대의 MAGTF 전투지휘체계조직개편이 1960년대 당시의 임무에만 기초를 두지 않고, 향후 예상되는 임무까지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나 상황발생 시, 전 가용전력을 일시에 투입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준비된 전력부터 축차적으로 배치하면서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전투지휘체계를 정립하고, 적정수준의 전투력을 배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첼들러는 기능 지휘소 경영자와 이를 총괄 조정·통제하는 중앙지휘소 경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가급적 기능별 경영자들이 현장단위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운용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중앙지휘소 경영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전략(임무)을 숙지하여, 기존자원을 적절하게 현장 사업장에 배분하고, 신 자원 획득방안을 수립·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미국해병대의 1960년대 초 상황에 비추어, 당시 해병대사령관 슈압 대장을 중앙지휘소 경영자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기업소유주의 위치에 놓아보자. 그는 국가통수권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해병대 감축 의지와는 다르게, 각개병사의 소총에서 고정익 항공기 확보를 대비한 해병항공후보생프로그램 등 조직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과 병행, 해병대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MAGTF 전투지휘체계 정립 등 최상의 준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하여 헌법에 보장된 3개 해병사단 및 3개 항공사단 편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타 항목별 분석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해병대는 해양을 건너 타국에 세력을 투사해야 하는 미국의 지·전략적 위치와 서구 진영의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주도하던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진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 합참의 '2½ 전쟁' 기획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군이었다. 특히 해군의 기동수송능력과 자체 항공단을 보유한 해병대는 대계릴라 전쟁이나 중·저강도 등 '½ 전쟁'수행에 가장 적합한 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둘째, 미국해병대의 전투력 및 조직은 헌법에 보장된 3개 해병사단과 3개 항공사단 편제를 유지한 가운데,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분할되어,

각각의 전역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양개 전역 중 미해병대대서양사예하부대들이 지중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제외하고 미국 동부 캠프 Lejeune을 중심으로 집결 보유되어 있던 반면, 미해병대태평양사는 미국 서부 캠프 Pendleton과 하와이,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지역까지 분산되어 있었다. 게다가 미국해병대 지상군 및 항공군이 제한된 핵투발 역량까지 보유함으로써, 유럽과 극동전역에서 발생 가능한 2개의 대규모 전쟁과 기타 아태지역이나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½ 전쟁’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력과 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상기와 같은 조건을 갖춘 미국해병대의 당시 임무와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강도 분쟁과 게릴라 전쟁에 대비한 임무는 해군의 기동력과 연결되어 위기발생지역에 가장 신속히 전개 혹은 상륙작전을 통하여 초기에 위기를 진압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당시 미국해병대 조직편제를 고려하였을 때,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지상군과 항공군을 결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었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후 각 군의 전투력을 통합하여, 합동군을 편성함으로써, 유사시 전투력 발휘 극대화를 도모하던 행정부(미국 합참)의 의지는 각 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실을 맺기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급제대의 의도와 해병대 자체 보유전력의 성향을 정확히 인식한 당시 미국 해병대사령관 슈압 대장의 결심과 명령은 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MAGTF 전투지휘체계 정립의 주춧돌이 되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령관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대실정에 맞는 팀을 구성해낸 미해병대대서양사와 태평양사의 지휘관과 참모들의 노력 역시 돋보인다.

상기 분석결과는 1960년대 초 미국해병대의 MAGTF 전투지휘체계 조직혁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발생시 임무수행에 적합한 최상의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지휘체계와 소속

전력들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주기적인 교육과 부대훈련이 병행되었다는 것이다. 미래 전쟁이 현재의 상황과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해병대 교육훈련은 당시 임무와 향후 예상되는 임무를 고려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이 평시 편제부대가 아닌 타 부대와 편조하여서도 제대로 된 전력발휘가 가능하였던 원동력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해병대태평양사 예하 부대들을 수직적으로 통합시킨 것과 미해병대대서양사에서 소규모 분쟁에서부터 대규모 지역전쟁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MEU-MEB-MEF 체계로 편성, 축차적인 전투력 투입을 고려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같은 MAGTF 전투지휘체계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4. 한 해병대에 주는 교훈 및 결언

첸들러의 이론에 따라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 정립을 연구한 결과, 한국해병대 공지기동부대 건설에 주는 교훈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해병대의 현재의 배치와 임무수행 체제를 고려 시, 미래의 부대구조 개편 목표를 공지기동해병대 건설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보다 훨씬 선진화된 전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국해병대도 평시 조직과는 별개로 유사시 혹은 부여된 작전임무에 맞게 편조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해병대의 전력현황, 부대 배치상태, 이에 따른 작계에 명시된 / 추정된 임무 및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임무들을 고려 시, 각 부대들을 공지기동부대로 편성하여 평시조직으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첸들러 이론의 핵심은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능별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성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병대는 평시 조직을 공지기동해병대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지휘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2017년 이후 전력화가 시작되는 항공단의 배치 위치와 향후 전·평시 및 위기 시의 운용개념과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한다. 유사시 전력배비와 투사를 위한 공지기동해병대 편성은 부대 SOP, 작계 등에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상륙과 공격헬기로 구성된 항공단이 편성 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능사령부와 그 소속 전력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해병대사령부에서는 항공단을 창설하기 위해 조종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상, 항공, 군수지원 전력과 통합하여, 미국해병대와 동일한 MAGTF 전투지휘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부대 실험과정과 기존 전투부대 혹은 항공제대 지휘관들에 대한 간부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추가하여, 출전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각종 합동/협동/연합훈련, 부대자체 훈련을 강화시켜 유사시 최단시간 내에 전투력을 통합하려는 체계정립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해병대가 비전에서 제시한 MAGTF 형 전투지휘체계를 유사시 편성 및 운용하려면, 그에 부합된 위협과 위기상황,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임무유형 즉 기능을 세분화하여 상황 유형별 대응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임무와 역할,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해상교통로 방호, 평화작전을 위한 해외 파병 시 등을 상정,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그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교훈들을 반영하여, 한국해병대가 미국해병대 수준과 버금가는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환경으로

한국 합참에서 추구하는 합동성 강화를 들 수 있다. 미국해병대는 법률적으로 3개 보병사단과 3개 항공사단 편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해병대는 이제 겨우 공격 및 기동헬기 수십 대를 가지게 된 것이지, 향후 상륙목표지역이나 지상 전장에서 공중 우세권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고정익 전투기까지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부속 도서지역이나 태평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구비하게 될 항공단을 자체 전력으로 통합한 후, 미국해병대처럼 해군의 해상수송능력과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부족한 전력은 타군 항공 등 추가전력을 할당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해병대 자체뿐만 아니라 해군, 합참, 연합사 차원의 부대예규나 작계에 필요한 전력배분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는 아직 정전체제하에 있다. 현재는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1960년대 초 미국 해병대사령관 슈압 대장이 주창한 ‘큰 팀 형성’ 차원에서 한국해병대의 임무수행 조직체계를 ‘공지기동해병대’화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임무나 변화하는 전략 환경을 고려 시, 중대대급의 소규모 위기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공지기동해병대 편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첸들러의 저서 『전략과 구조』 출판시기가 미국해병대 MAGTF 전투지휘체계정립의 시기와 일치하고, 또 그가 1954년에 미국 해대원에서 ‘국가전략의 기초’ 과정을 개설하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집필 결심한 것을 볼 때,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군사이론을 경영학에 접목시켰다고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손자, 클라우제비츠, 조미니, 마한 등 전통적 군사전략사상가들의 군사이론을 접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1960년대 초 미국 4개 대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제시한 창조적 혁신의 조건, 과정, 의미 등은 당시의 100여 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해병대의 MAGTF 전투지휘체계 개편에도 적용 가능한 유용한 분석의 틀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는 동서진영 간 대립으로 인하여 대규모 전쟁과 병행, 중·저강도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군의 대비태세가 전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면, 현 시대에는 후자에 대비한 태세정립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철편리의 이론적 분석의 틀은 유효하나, 그 속에 대입해야 하는 환경적 혹은 전략(임무) 등의 세부 내용은 시대 상황변화에 맞게 변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는 기업의 혁신과정을 미국해병대의 전투지휘 조직체계에 대입·분석함으로써, 기업관련 이론과 분석의 틀도 군의 조직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군은 행정, 조직, 인사, 전략 등 많은 분야에서 이론적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군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체계 때문에 혹시 간과한 요소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들은 경쟁력의 근본토대가 지속 변화되면서, 최고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고 있어, 특히 조직관련 이론분야는 군보다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 시대 조직설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중 갤브레이스(Jay R. Galbraith) 교수는 조직 형성의 동인으로 구매자 권력, 다양성과 솔루션, 인터넷, 다차원성, 변화, 스피드 등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⁵⁸⁾ 이러한 동인들을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보다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군이 간과하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기업의 인사와 조직, 행정, 미래 지향적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도 군에서 도입하여 정착시킬 것은 없는지 되돌아 볼

58) Jay R. Galbraith, *Designing Organizations: An Executive Guide to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2002), 김현주·정재상 공역, 『전략, 구조,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조직설계방법론』, 시그마인사이트컴, 2005, 21~27쪽.

필요도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역행하는 조직들은 퇴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고투고일: 2014.8. 27,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미해병대, 한해병대, 공지기동해병대, 전투지휘체계, 알프레드 D. 찬들러, 전략과 구조이론, 기능지휘소, 중앙지휘소, 지휘구조, 부대구조

<ABSTRACT>

A study on the Lessons learned and the Establishment of
Battle command systems by US marine MAGTF
(Marine Air Ground Task Force) in 1960s

Lee, Pyo-kyu

Alfred D. Chandler has been received the evaluation that he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cholar at the field of social science in the 20th century, and that he created his own unique research area of business history. His 'Strategy and Structure' theory was established by analysing the four major enterprises' It is known as a pioneer of corroborative evidence study regarding on the strategic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organiza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ome lessons for a future construction of the ROKMC's Marine Air Ground Task Force Type unit structure after analysing the decision processes and the results of the USMC' s MAGTF Combat Commanding System establishment in 1960s using the 'Strategy and Structure' theory posited in the book of Alfred D. Chandler.

In order to do this, I summarized the major actions, contents, effectiveness of the adaptive(creative) response and the creative innovation from the book, 'the strategy and structure' of Chandler, and transferred them into relative variables suitable to the USMC's situation at that time. The MAGTF Combat Commanding System structure and innovation process are analys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and upcoming years' missions with the background of the necessity, combat structure and organization status of the USMC in the dimension of the US military strateg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GTF Combat Commanding System was not focused on the military forces construction in peace time, but it was an

inevitable option to increase the combat capability responding to a crisis using the maximum effort of the organizational components.

Except for point as above, the following three lessons learned are extracted. Firstly, the HQs of the ROKMC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location of a future Marine air group which will be built-up from 2017, and its future operational concept and direction, in order to decrease burden of subordinate commanders generated by the ROKMC's future MAGTF type forces structure. Secondly, in order to integrate the air group with the existing the ground and service support group,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for maximum integration of the Marine Air Power Group within a short time by strengthening the joint/combine/team-up, and its own exercises, and by doing the units experiments and a lot of education for the top and high/middle level executives to get the readiness posture. Thirdly, it is inevitable to make responsive logics suitable to the situational environment, by itemizing the mission types or functions capable by the ROKMC's MAGTF Combat Commanding system, and threats, and crisis circumstances.

One of the main achievement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oint that the theories and analytical frameworks for business could be employed in the proces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innovation. Up to the present time, the military community has achieved numerous theoretical developments in the areas of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personnel, strategy, and so on. However, it is time to review any missing points stemm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sed organization system of the military communities. Al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al agencies, military organizations and business enterprises are continuously pursuing the maximum effort to effectively use availabl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remind that the organizations are not to follow this atmosphere would be retrogressive.

Key Words : USMC, ROKMC, MAGTF, Combat Commanding System, Alfred D. Chandler, Strategy & Structure Theory, The Functional Departments, The Central Office, Commanding Structure, Military Structure